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2~2015.3.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람	헤인	수오서재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2	한국인이가장좋아하는선문답	장중연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봉스님	김한호
3	약사유리광찰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법문상대법회행록(고승대법회행록)에대한연구	법륜	나무의마을	9	호흡이주는선물	래리온앤그리	나무의마을
5	실전(법정어문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10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 “차가운 공존은 불교적 의미의 공동체”

승려와 원승이

심재관, 최충덕 공저 | 동녘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은 '자아 윤회 감정 미학 방편 진화 문화 종교 집단 믿음 고독 원형' 이렇게 모두 12개의 키워드로 구성됐다. 자아, 윤회는 불교서 다루는 주제이지만, 자아의 경우 인간 존재에 관한 질문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책의 시작서 먼저 다룰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적 불교 사상은 다루는 자아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기의 불교 사상, 불교에서 다루는 본질적인 개념과 어떻게 다루는지 차근차근 분석한다. 이어 감정과 미학, 진화, 문화, 집단, 고독 등은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생물학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한다. 삶의 이런 요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일상적이어서 놓치던 부분을 폭넓게 사유하도록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방편, 믿음, 원형 등 종교 일반서 드러나는 요소들을 다루며 타종교와 불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불교를 일반적인 종교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끔 한다. 두 학자의 대화를 통해 불교를 종교 바깥의 차원에서 거리를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절집에서만 쓰는 상투어구라고 볼 수 있다. 벗긴 껍질 안에 참 자아가 숨겨 있다는 생각이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구체적인 경합적인 모습이 바로 자아이다. 감각의 다발들이 바로 자아라는 셈이다. 다른 종교가 연역적 이론 체계라면, 불교는 귀납적 행동 체계라고 볼 수도 있다.

### 불교와 신경생리학 지향점의 유사성

감정이 좋든 나쁘든 지나치면 번뇌의 단초가 돼 그러한 감정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놀랍게도 신경생리학서 말하는 감정에 대한 기초도 이와 같다. 생리학에서는 감정의 복합체를 마음이라 일컫는데, 몸의 피부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 자극받은 느낌을 걸러내지 않고 쌓아 놓게 되면 결국 감정이 상한다고 말한다. 이 느낌을 걸러내는 장치가 바로 감성인데 여기서 감성은 감수성과는 다른 의미다. 일례로 요즘 아이들에

도가 된다. 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이다. 가령 내 몸에 있는 박테리아가 나쁘다고 해서 이를 모두 없앤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도 죽게 된다.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 진화의 소산물이라고 진화생물학에서는 말한다. 그래서 어느 생명종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기에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한다. 진화론이 시사하는 이러한 평등성과 공존 관계는 불교의 연기론과도 유사하다. 특히 '나'라는 존재가 다른 생명들과 얽혀 존속한다는 점에서 불교적인 메시지를 지녔다. 한 생명의 존재론적 조건은 모든 다른 생명에 의해 연관됐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론서 말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화론을 크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정향 진화'다. 원시 세포가 발전해서 균류가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승이로 발전해 집권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일방향성 발전을 말한다. 이것은 큰 오류라고 진화학에서는 말한다. 진화론은 서로 갈라지면서 다양한 생명종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어떻게 갈라진 종 중 하나가 호모사피엔스이다. 서구 인종학자들이 흑인을 고대 원시인의 흔적으로 간주한 것 역시 인종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된 왜곡된 셈이다.

### 불교와 생태학적 앎과의 유사성

앎은 불교의 특징이다. 불교서 말하는 앎은 지식과 추상적인 진리 세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흐름이나 내 생각 밑에 깔린 인과론의 고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앎을 말한다. 그러한 현상적인 문제를 직시한다는 점에서 진화론의 생태학적 앎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이 전체에 걸쳐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것은 생태학적 관계성과도 같다. 다른 공간에 펼쳐져 있는 다른 사물, 사람, 사건까지의 관계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개체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모종의 상관성을 지닌다. 서로에게 무관하지만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불특정적인 공진화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공존 방식을 생물학자 저자는 '차가운 공존'이라고 말한다. 그런 차가운 공존이 결국 불교적 의미의 공동체성이라고. 그것이 불교를 '차가운 종교'로 부르는 이유이자, 타종교와는 다른 특징적인 점이라고 말한다.

### 대담 통해 불교 쉽게 풀어내다

### 12개 주제로 엮은 불교와 과학

게 감성 훈련이라고 시키는 예술 교육은 감성 연습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성 교육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처리 훈련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연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감성으로 조절되지 못한 감각들이 아무 여과 없이 수용돼 일회일비하게 된다. 그렇게 축적된 감정들은 행동을 과잉으로 유도하거나 폐쇄하게끔 한다. 슬픈 감정이나 기쁜 감정이나 감성의 피부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미조절의 감정들은 결국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불교서도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감정과 욕망은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조절이 가능하도록 세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고 상호 간 욕망을 조정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는 그러한 보편주의 윤리학과는 거리가 멀다. 고통을 없애는 도구화된 방법을 적극 제안할 뿐이다. 고통을 낚는 직접적인 인과 작용의 원인을 깨닫고 욕망을 통제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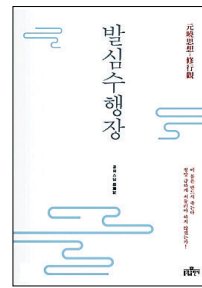
### 불교와 진화론 간 사유 구조의 유사성

우리 몸은 60조 개 세포로 구성됐는데 인간이 갖는 세균, 즉 박테리아 수는 그것의 5배 정

## 자리아타의 보살 정신 담긴 6바라밀 지침서 원효사상 전문가 공파 스님이 강의하듯 풀어써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 8천원



《발심수행장》은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자 해동보살로 추앙받는 원효 대사의 300여 권 저술 가운데 길이가 제일 짧은 글이다. 하지만 간결한 문장 속에 불교 수행의 진수인 바라밀이 남김 없이 새겨져 있어 출제자를 막론해 불교 초심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손꼽힌다. 실제 불교전문강원서 사미승들이 가장 먼저 학습하는 책이기도 하다.

총 706자의 사언절구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 수행자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 수행자가 머물러야 할 이상적인 장소와 닦아야 할 수행법 등이 낱알이 소개돼 있다.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불굴의 의지로 정진해가리라'는 원효 스님의 결의와 일체중생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깊은 자비심이 배어 있는 글이다.

이 책의 저자 공파 스님은 부산 원효센터서 수년간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강의하는 자타공인 원효

사상 전문가이다. 스님은 이 책서 《발심수행장》 원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떼어내 해석을 붙이고, 거기에 담긴 함의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썼다.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등서 관련 내용을 인용해 원문을 부연하는 한편,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적절한 예시와 비유로 독자들이 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원효 스님 가르침을 몸소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책 서두에 한문 원문과 별개로 독송용 글을 실어서 수행자들이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익혀 늘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라밀 수행이다. 원효 스님은 하루빨리 고달픈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부처의 길로 들어설 것을 재촉하면서, 그 방법으로 6바라밀 수행을 제시한다. 바라밀은 크게 동적 바라밀과 정적 바라밀로 나누는데 보시·지계·인욕·정진이 전자에 해당하고, 선정과 지혜가 후자에 속한다. 원효 스님은 동적 바라밀을 행(行)이라고 부르고 정적 바라밀을 지(智)라고 표현하여 이 둘을 함께 닦을 것을 권했다.

원효 스님은 신행이 없는 앎과 앎이 없는 신행을 경계하면서, 동적 바라밀과 정적 바라밀이 순차적이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 약사여래의 12서원과 그 공덕 이야기

약사경 강의

남희근 지음 | 부키(주) 펴냄 | 1만 5천원



《약사경》은 수행의 실재를 말하고 있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이치를 전하는 경전이라는 데 무지했기에 대중 속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기도와 염불의 대상이 된 《약사경》은 약사여래의 열두 가지 서원과 그 공덕을 이야기한다.

이 경은 문수보살이 발기증이 되어 석가모니부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문수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깨달은 이들의 대원과 그로 인한 뛰어난 공덕을 알려 달라고 청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소개한 인물이 바로 《약사경》에 등장하는 약사여래다. 이는 과거에 보살로 수행할 적에 다음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 부

처가 되면 모든 이들을 고통서 구하고 원하는 바를 얻도록 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 그것이 열두 가지 주요해 핵심을 세웠다.

저자는 깨달음을 중생을 위한 원을 세우는 것이요, 부처님의 감응은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修持)해 자신의 심리 행위를 바꿔 나가는 데서 온다고 강조한다. 《약사경》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한다. 중생을 위한 큰 서원, 참된 견해와 바른 지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임을, 그런 불국토를 보여 주는 경전임을 전한다.

이번에 나온 《약사경 강의》는 1981년 대만 사방서원(十方書院)서 출가 수행자들이 재가 거사들을 위한 강의였다. 말하자면 전문가가 대상이었다. 이 강의는 세상 사람들을 제도할 책임이 있는 출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경전을 강연할 때는 미세한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 설명하며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인생 경험을 예로 들며 경전의 뜻과 하나로 녹여냈다. 이번에도 강연 녹음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강연 당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장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유기마을

##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물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저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가밭>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셨다.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는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MoonZen Press)  
☎ 031-534-3373